

5·18 계엄군, 잔혹한 성폭행 51건 있었다

정부 차원 조사 첫 공식화... 여고생·여대생 상대에 집단 성폭행까지
5·18조사위, 24건 조사 완료·20건 피해자 조사 거부·7건 조사 불가
피해자들 일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극단 선택으로 생 마감하기도
27일 도청 유혈진압 뒤 미니버스에 태워 간 미성년자 3명 행적 조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로 공식화 된 적은 없었다. 계엄군은 여대생과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은 물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일부는 송두리째 뺏긴 일생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는 이와는 별개로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을 유혈진압한 뒤 미니버스에 태워 간 미성년자를 총 3명으로 보고 행적 확인

에 나섰다. 5·18조사위는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대상(직권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으로 해 현재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51건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뽑은 26건을 합한 것으로 직권 조사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8건은 5·18조사위가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건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4건 중 집단 성폭행은 최소 2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 이후 정신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도 7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2-4명은 여고생으로 확인됐다. 5·18조사위는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부대를 특정해 교차 검증작업도 진행했다. 조사결과 계엄군의 성폭행은 잔혹함 그 자체였다. 여고생이었던 A양은 1980년 5월 19일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광주시 백운동 인근으로 추정되는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고 3학년이었던 B양도 5월 19일 시내에서 계엄군에게 불잡혀 트럭에 실려 숲속으로 끌려갔다. 계엄군들은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후 외곽 길거리에 버렸다. 이후 B양은 광주의 한 대학에 입학했지만, 점차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5년 7월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1년 뒤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수십 년째 정신병동에서 살고 있는 피해여성도 확인됐다. C씨는 1980년 5월 20일 새벽 언니 집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던 중 무장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씨는 이후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1982년 7월

국립나주정신병원 입원을 시작으로, 1986년 대구 시립희망원 등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1988년 4월 다시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실명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조사위는 이와는 별개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을 유혈진압한 뒤 미니버스에 태워 간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당시 프랑스 사진기자 2명의 사진을 토대로 계엄군에 잡혀간 미성년자를 총 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당시 11살이었던 조모씨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다. 조씨는 도청에서 일하던 어머니를 찾아 집을 나섰다 27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광주 송정리 군부대로 끌려갔다. 조씨는 1주일간 군사사에서 지내다 도망쳐 서울로 갔다. 이후 서울과 부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8년 뒤 아버지가 자신을 행방불명자 신고하면서 신원이 확인됐지만 부친의 사망으로 지금까지 고아로 생활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빨간 줄무늬 스웨터를 입은 당시 5살의 아이를 이모씨로 추정하고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모씨는 외신 기자 '노먼 소프'가 촬영한 사진에도 찍혔다. 최근 프랑스 사진작가의 사진을 통해 확인된 당시 12살의 여자 어린이에 대한 추적은 진행중이다. 중학생처럼 보이는 이 여자아이는 '5·18 수습대책위원회' 수습위원으로 활동한 이종기 변호사의 목을 두 팔로 끌어 안고 있는 모습이 촬영됐다. 5·18조사위도 사진을 확보해 계엄군의 연행구급자 명단과 비교한 결과 이 여성을 특정하고 행적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여성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와 통신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여성 성폭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심주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당시 광주·전남의 정신병원·집단수용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행방불명된 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북댐 수위 상승 7일 오후 지난 연휴동안 내린 비로 인해 광주 식수원인 화순 동북댐의 수위가 올라가 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북댐 저수율은 35.1%를 기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큰 비' ... 물걱정 끝났다

동북댐·주암댐 저수율 30% 돌파
비 한방울 안 내려도 9개월 이상무

광주·전남지역에 5월 첫 연휴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반 세기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서도 벗어났다. 시민들이 지긋지긋한 절수운동에 동참해 준다면, 일단 올해에는 제한급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7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닷새간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장흥관산 344mm를 최고로 고흥 나로도 343.5mm, 해남 북이리 336.5mm, 완도 보길도 291.5mm, 광주 광산 174mm 등을 기록했다. 빗물 유입에 따라 10~20% 대를 오가던 광주시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각각 35.1%, 30.1%를 기록 중이다. 이번 비가 내리기 직전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각각 21.2%와 20.7%였다. 광주 동구와 서구, 북구 일원에 식수를 공급하는 동북댐의 저수율은 지난해 12월 5일 3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지난 3월 13일에는 20%대로 붕괴되면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10%대로 떨어지

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3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호우로 동북댐의 저수율이 회복되고 있으며, 현재 저수율은 3204만2000t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의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과 주암댐 조 절지 댐에도 물이 차면서 합계 저수량이 2억t을 넘어선 상태다. 식수원의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 대상이 되는데, 광주시 기준 시민들의 절수 운동에 힘입어 하루 평균 0.1% 정도씩 저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적용하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최대 281일 (동북댐 기준)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수일 동안 이번 호우에 따른 빗물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수율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만 해도 두 댐 모두 10%대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호우 직전까지 제한급수 위기를 극복해 낸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마른장마'를 겪은 이후 선제적으로 대시민 절수운동 등 물 자원 확보를 위

한 전방위적 가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시는 특히 그동안 비상 대체수원 개발에 집중해 왔는데, 이번 가뭄 극복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 사업과 동북호 주변 신규 관정 개발, 댐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인 '사수(死水)' 확보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점상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호우와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해 준 시민들 덕분에 올해는 제한급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보인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에 따라 가뭄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상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등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는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에도 단비가 되고 있다.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군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은 이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섬 지역 10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기존 25%에서 63%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완도군은 주 1~2회만 급수가 이뤄지던 4곳 섬 지역에 대한 제한급수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번 비로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선 정전, 침수, 도복 피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한국 전문가 파견"

한·일 정상회담 공동 회견
尹 "과거사 문제 어느 일방 상대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를 통해 "정상간 서를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경련과 게이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2면 광주비엔날레 한 달 침체세 못 벗어나
- ▶6면 5·18 기념일 공휴일 지정 ... 여전히 '반쪽'
- ▶18면 봄비에 막힌 KIA 타이거즈의 상승세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